

불교, 삶에 답하기 시작하다

‘불교 인문학’ 대중 강좌 가보셨습니까

“떨치면 팔만이지만 모으면 마음 하나.”
 지난해 인문학 모임인 크리에이티브살롱이 주최한 ‘불교-마음의 위생학’에서 강의를 진행한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불교를 두고 한 말이다.
 인문학 붐을 타고 불교가 사찰에서 나와 점점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불교를 논하는가 하면 스님이 청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고리타분함을 벗고 활기찬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는 불교 인문학 강의를 살펴봤다.

종교·인문·예술의 통섭-‘시민행성’

‘시민적 덕성을 자각해 공공적 가치를 복원하고 은하계(공동체)의 일원이 되자’라는 뜻으로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주축이 돼 지난해 창립된 인문 공동체다. 인문·사회·예술 강좌가 꾸준히 열리고 있으며 9월부터 개강한 가을 학기에는 ‘붓다의 행복론: 다섯 가지 주제로 만나는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이미령 동국대 역경위원이 강단에 선다. 이외에도 인간의 마음 너머, 장자강독, 품의 해석 등의 강의를 열고 있다. 시민행성의 회원이 되면 모든 강

의를 제약없이 들을 수 있다. 한 달에 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모든 이들을 위한 인문학-‘북카페 서재’
 따뜻한 커피와 함께 불교 고전을 읽어볼 수 있는 곳이다. 경기 일산에 위치한 북카페 ‘서재’에서는 9월부터 <유마경>을 주제로 인문학 공부에 열리고 있다. 까페지기 주최로 열리는 인문학 공부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꾸준히 이어져 벌써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는 서강대 종교학 교수로 재직중인 오지섭씨. 세계종교이해, 논어, 한국사상, 금강경, 붓다와 예술에 관한 인문학 강의를 직접 맡는다. 주제는 5~6주마다 바뀐다.

서재의 모토는 모든 이를 위한 인문학, 사람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고민들을 인문학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마련됐다.
 <유마경>을 강의 주제로 정한 이유로 오 교수는 “불교·경전을 통해서도 독특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출가수행자가 아닌 재가(在家)신자인 유마경사의 시각에서 불교 핵심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한다. 오 교수는 현재 삶 안에서 초월적

진리를 실현해나가는 길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유마경강의를 추천한다.

한국불교의 대안찾기-‘눈부처학교’

정의평화불교연대(공동대표 이도홍)가 마련한 무료 불교인문학 강좌다. 한국불교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총 16강으로 진행된다. 원효의 화쟁사상을 현대에 적용해보는 ‘불교의 통일관과 평화관’ (이병욱 고려대 강사), ‘한국 불교 문화위기’ (최연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원효와 마르크스의 사상을 비교하며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보는 ‘인류의 위기와 대안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이도홍 한양대 교수), ‘선(禪), 유랑의 삶에서 고향의 삶으로’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속가능한 생태적 대안사회를 위한 불교공동체의 모색’ (류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10월부터 11월 19일까지 하루에 두 강좌씩 주 1회 운영된다. 장소는 서울 천태차문화원이다.

종교철학 공부방-‘홍익학당’

불교방송에서 <수심경>을 강의하기도 한 윤홍식씨가 주축이 돼 운영하는 곳이다. 동서양 철학, 종교철학 등이 주로 다뤄진다.

오프라인 모임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인문학 1주일 완전정복 시리즈를 들을 수 있다. 홍익학당의 강의를 간략히 모은 강좌다. 불교철학편에서는 <신심명> <반야심경> <금강경> <벽암록> <선가귀감> <육조단경> <대승기신론> <출입식법경>등을 순서대로 익힐 수 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경선콘서트’를 진행한다. 깨침, 행복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강좌다.

삶의 지혜 구하는 시간-‘남산강학원’

인문학공동체인 남산강학원에서는 철학, 고전, 세미나 등이 거의 매일 열리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화 스님의 열린강좌다. ‘청춘, 그들의 성과 사랑’ ‘노년, 나이들에 대하여’ 등이 강좌의 주요 주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좌 예고가 나가면 댓글로 신청하는 이들이 80명을 훌쩍 넘을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 정화 스님의 강의 역시 삶과 유리된 인문학이 아닌 삶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해 불교적 관점으로 설명함으로써 삶의 지혜를 구해 보는 시간이다. 격월로 한 차례씩 매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일반인들과 만나고 있으며 <유마경> 강의는 매달마다 진행된다.



주최	주제	장소	전화번호
시민행성	붓다의 행복론	서울 중로구 사간동	070-8872-2023
남산강학원	열린강좌, 금강경 등	서울 중구 필동	070-4334-1790
북카페 서재	유마경	경기도 일산시	031-902-7773
눈부처학교	인류의 위기와 원효 등	서울 중로구 경운동	010-3275-4846
홍익학당	경선콘서트	서울 은평구 진관동	02-322-2537
서울시민청시민대학	불교미술 등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02-384-8095
경계너머 아하	영어로 읽는 반야심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02-882-0667

또한 일요일에 열리는 ‘굿모닝 인문학’의 10월 주제는 <금강경>이다. 남산강학원에서는 <금강경>을 ‘불경이 아닌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귀중한 교양서’라고 소개하며 수강생들을 모집 중이다. 강사는 우승순 길위의인문학 기획위원이다.

시민 위한 인문학-‘서울 시민청 시민대학’

서울시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인문대학이다. 현재 매주 목요일마다 율림이 있는 불교미술을 주제로 손신영(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강의를 하고 있다. 불교미술의 시작, 전개와 각 시대에 따른 변화상을 짚어본다. 서울시내 대학 9곳과 연계해 진행되는 시민대학에서는 각 대학별로 특화과정이 지정돼 있다. 동국대는 마음과 인문학이란 주제로

‘깨닫는 마음을 추구하는 불타인문학’ ‘깨어있는 마음을 추구하는 시민인문학’이 12월까지 개설된다.

경전, 영어 강독 해볼까-‘경계너머 아하’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교수가 10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영어로 읽는 반야심경’을 강의한다. 반야심경의 배경, 보살 사상의 연원, 초기불교 존재론, 공 사상, 보살의 길, 만트라와 효용성 등 6주에 걸쳐 진행된다.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저명한 학자의 강론을 들을 수 있다. 한글이 아닌 영어 강독을 하는 이유는 영문으로 표현될 때 전해지는 새로운 풍미를 얻기 위함이다. 아하는 열린종교 아카데미로 1년에 두 번씩 종교관련 강좌를 개설한다.

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불교+인문학’ 가능성 풍부 다시 ‘인간의 삶’을 주목하자

불교와 인문학 통섭을 위한 제언

인문학 열풍은 한국 사회 저변에 퍼져 있다. 2000년 초반 인문학의 위기라는 비판과 우려가 무색해질 정도다. 이제는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교계 상황도 비슷하다.
 사실 불교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았었다. 새로운 시대의 인문학에서도 불교의 가능성과 입지는 분명하다. 이에 대해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인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성찰하는 학문이고 불교는 삶의 본질을 알아가는 데 있다”면서 “두 가지 접점에서 불교와 인문학이 만나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 통용되는 인간관과 세계관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반면 세속 사회는 우리 삶의 가치와 문화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종교적 진리에 관심이 많다. 이들의 소통은 많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탄허기념박물관 연구실장 문광 스님은 한국불교교단의 전통인 회통 사상이 현대 인문학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많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현대 사회는 이원론 사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소통하고 회통이야 평화가 오는 시대에 회통의 정신을 가진 한국불교가 가지는 인문학적 가치는 확고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가치를 지닌 불교이지만 인문학 내 위치는 부족하다는 관련 학자들의 중론이다. 학자 층이 다른 동양철학 분야보다 낮고, 설사 있더라도 그들을 활용할 수 있

는 전문 기관도 적다. 또한 인접학문 간의 연구도 부족해 제대로 된 통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동국대를 제외하고 나면 전국에 불교 학자를 필요로 하는 정원이 10곳이 안된다”면서 “세계적인 학문 조류를 봐도 불교의 입지는 확고하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교수 정원 비율을 100명이라고 하면 유교와 노장 사상은 합쳐 20명 정도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 종립대들의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불교학의 저변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와 인문학의 만남·통섭의 현주소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학제간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불교학은 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택 교수



유승무 교수



문광 스님



고영섭 교수



조은수 교수

한국불교의 전통은 ‘회통’ 인접학문과 합일점 찾아야

자기만족의 현실 타파하고 종단·학교서 장기적 지원 필요

불교 근본은 삶에 대한 천착 시대 언어로 불교를 말해야 진정한 ‘불교 인문학’ 완성돼

고영섭 교수는 “불교와 인문학이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없다. 1차적으로는 학자들의 인일합과 불자들의 직무유기가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불교 바깥 학문과의 접촉도 필요하고 불교의 한문 원전을 강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다. 두 가지를 함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불교와 인문학의 통섭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돼야 할까.
 전문가들은 불교와 인문학이 인간의 근본을 성찰하는 것인 만큼 ‘인본’가치의 기본을 지키고, 동시에 한국불교 근본 정신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무 교수는 “불교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라면서 “불교는 인간의 삶을 떠나 존재하지 않듯이 현대의 불교학은 교학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 철학을 천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광 스님은 “한국불교 전통인 회통 정신의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이미 불교 안에는 화엄과 선(禪) 등 통섭의 요소들이 많다. 이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부해 활용해야 한다. 바깥이 아닌 우리 안에서 통섭의 가치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성택 교수는 ‘불교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불교는 절대자를 믿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불교는 단순히 인간 중심이 아닌 모든 만물과의 상호 존재를 중요시 한다”면서 “이제는 불교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불교 인문학 사유를 통해 현대 사회를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 인문학은 시대 언어로 불교를 이야기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여기 나의 눈으로 ‘불교’를 바라보며, 또한 불교를 통해 ‘나’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배현진 기자

창간 20주년

성명서

전국비구니회의 투명한 상호소통과 정상적 운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 운영과

제16대 중앙총회 비구니의원 후보 선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9월 22일 개최된 전국비구니회의 제16대 중앙총회 비구니의원 후보 선출과정과 이를 통해 드러난 비구니회 운영진 내부의 파행적인 운영을 목도하며 깊은 우려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종단의 입법, 대의기구로서 전국 6천여명의 비구니스님을 대표하는 총회의원 후보를 최소한의 여론 수렴이나 합리적 선출 절차 없이 비구니회 소수 운영진 스님의 독단적 의지에 따라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종단 내 비구니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비판해온 노력과 진정성조차 의심케 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마치 비구니회가 비구니스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차별에 억눌려 있는 비구니스님들 위에 군림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비구니스님들은 종단 회계위원의 진출, 종단 집행부 및 중앙총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비구니스님 스스로의 갈마와 종단의 주요구성원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선출을 둘러싼 소통부재와 갈등으로 인해 비구니스님들의 참종권 확대와 권익향상은 점차 요원한 일이 되어가고 있으며, ‘개혁’을 외치기 이전에 내부부터 성찰하라는 준엄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비구니회의 중앙총회의원 선출이 비구니스님들의 의지를 오롯이 반영하지 못한 채 집행부 구성원 소수의 전횡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제도적 미비점에 있습니다. 종단 최고의 입법/대의기관에 진출해 비구니스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중앙총회의원 후보 선출의 엄중한 절차를 규정하는 명문화된 법규나 시행규칙 등이 부재한 것이 오늘날 전국비구니회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비구니회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고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 조성과 나아가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 권익 향상 등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절박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전국비구니회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지니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전환을 요구합니다. 특히 현 운영위원장의 선출 과정을 비구니스님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의 문제점이 밝혀질 경우 위원장직 사퇴 등 전국비구니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비구니회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며, 제16대 중앙총회 비구니의원 후보의 파행적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각 지회장을 비롯 운영위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채 비구니총회의원 후보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구니 총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한 제도적 보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비구니 총회의원 후보선출 절차의 투명성, 합리성 제고를 위해 선출공고, 후보선출 절차, 간선직 선출위원 선정기준 등 제반내용을 명시한 세부적인 회칙과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넷째, 참종권 확대 등 비구니 권익 향상을 위한 전국비구니회의 입장과 발전 방향 제시를 요청합니다.

최근 중앙총회는 비구니 회계위원 진출에 대한 중언부언을 부결하는 등 종단 내 양성평등에 관해 보수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해소하고 비구니스님 참종권 확대와 권익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6천여 비구니스님들 앞에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비구니스님 공동체 내부의 투명한 상호소통 부재와 원칙에 역행하는 관행주의에 우리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내부성찰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인 비구니 총회의원 후보 선출이 정상화 되고, 비구니회 내부의 투명한 상호소통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열린비구니모임(가칭) 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 해운, 임대, 정현

<동참명단>

견유 경현 고심 광현 개현 기형 능륜 능계 능지 능환 능현 다경 다우 대성 대훈 덕화 도각 도림 도은 도행 동선 동성 동주 동창 동천 명연 명오 명은 명행 명현 명연 명선 명호 무구 문성 백경 범경 범경 범법 범문 범정 범공 보경 보문 보민 보은 본각 상승 서암 선경 선관 선애 선주 성각 성수 성진 성호 성찬 수경 승신 승진 영광 영석 오인 우림 우송 우연 윤효 원돈 원영 유광 은일 의성 인성 일범 일양 일연 일장 임대 자경 자도 자명 자문 자연 장하 재마 재범 재성 재은 적인 정권 정관 정도 정본 정수 정영 정업 정우 정은 정원 정행 정현 정영 정중 중앙 중원 지경 지공 지광 지담 지도 지명 지상 지설 지엄 지원 지은 지인 지중 진명 진모 진송 철륜 철우 철환 철용 행관 행관 현성 현수 현구 핵덕 핵욱 핵운 핵조 흥인 효광 효원 효담 효정 효철 (가나다순)